



◁한마음합창제는 모든 출연자와 관객이 한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며 불자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는 환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사진은 스님합창단.

사바에 올려퍼진 피안의 노래마당

'심장병 어린이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성황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 56명과 어머니(357명), 아버지(193명), 청년(92명), 스님(70명) 합창단까지 총 768명이 모여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한마음선원 합창제 임의 소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희와 감동으로 전한 뜻깊은 공연이었다.

한마음의 근본 따라 오고 감이 전혀 없이 '물 같이 여여 하게 광동공법 살라하네'라는 선법가를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 갈 것을 서원하는 합창단 뿐 아니라, 객석의 불자들이 또한 그 가르침의 함축을 함께 깨달아가는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오 날 합창제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자는 목적 외에도 한마음선원 전국 15개 지회의 합창단이 모두 모여 한마음선원인의 독자적인 발표회를 갖는 무대이기도 했다. 처음 갖는 큰 행사인 만큼 각오와 준비

15개 합창단 768명 공연

스님도 합창 · 콩트 눈길

도 남달랐다. 6개월 전부터 합창제 준비에 들어가 합창단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연습했다.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 믿었고, 또한 생활 속에서 대형 큰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자 하는 소박한 희망도 담았기에 합창단뿐 아니라 신도와 대중스님까지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했다.

오후 4시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한마음선원 어머니합창단이 등장하며 합창제의 막이 열렸다. 3천 5백석 규모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3층까지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 차고, 군데군데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불자들도 있었다.

어머니합창단에 이어 어린이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해맑은 미소와 양동밧은 율동으로 '공심공체'를 아닌 노래 '아기염소' '새싹들이다' 등을 선 사한 어린이합창단은 참석한 모든 불자들에게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운문으로 이야기



◁절묘한 화음을 선보인 어머니 · 어린이 합창단.

해 주었다. 특히 이번 합창제에서는 여느 합창공연에서 볼 수 없는 스님 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시선을 모았다. 한마음선원 대중스님 70명으로 구성된 스님 합창단은 어둠 속에서 목탁을 치며 등장해 '삼세가 들 아닌 노래' '선종문 앞아보세' 등을 불러 세종문화회관을 장엄했다. 마치 중생을 위해 피안(彼岸)의 세계에서 차인(此岸)의 세계로 건너온 보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순간이었다. 또 엄마와 딸로 분장한 합창단이 등장해 '공심(空心) 공체(空體) - 공생(共生)의 도리를 설명한 '콩트'도 이색적이었다.

이들 외에도 이날 합창제는 패기와 힘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 청년합창단, 각 지역에서 올라와 활인 피로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지원원 합창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과 어우러진 어머니합창단의 우리민요 한마당, 어머니와 어린이합창단의 절묘한 화음, 아버지 어머니 청년 혼성 합창단의 공연.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한 한마음연합창단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공연이었다. 객석의 불자들도 한국 한국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서 응답했고, 마지막에는 명불곡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렇게 한마음 합창제는 모든 출연자와 관객이 한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며, 불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환희와 감동의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은자 기자

11일 한마음선원 합창제에 참석한 월운스님(평신사 조삼)은 "행사를 위해 애 쓴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불교위상을 한층 높인 수준 높은 합창제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우스님도 "한마음합창단의 이번 공연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찾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오후 4시와 7시 2회에 걸친 공연에는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일면스님(봉선사 주지),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 해거스님(금강산원 원장), 브광스님(동국대 교수), 지홍스님(조계사 주지), 지광스님(삼선포교원 원장), 진관스님(진관사 주지), 수현스님(종회의원), 경륜스님(종회의원), 이수덕 사장(불교텔레비전), 백창기씨(중앙신도회 회장), 김동훈씨(경북련 운영위원장), 안홍부씨(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총장), 황남채씨(판화가), 한인숙씨(한나라당 총재 부인), 손학규의원(한나라당), 윤소년씨(민주당 고충처리위 부위원장), 함종한씨(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이상근씨(민주당 연동회 사무국장) 등 8천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월운·광우스님 등 8000여명 동참

보시금 1억원 복지재단에 전달

이날 현장에서 모금된 보시금은 9천1백여만원에 달했으며, 특별성금까지 합쳐 총 1억원이 모금됐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스님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16일 심장병어린이를 위해 사육해 달려온 한국복지재단에 전달했다.(본원기사4면)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세상사 읊은 '선승의 향기'

한글대장경의 세계

부휴당집

글대장경의 간행목록 번호 71번째에 해당하는 부휴당집(浮休堂集)은 조선시대의 명승 부휴당 선수(善修)선사의 시와 산문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부휴당집 외에 환성대사문집인 환성집, 제월당대사집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부휴당 선수스님은 조선 중종 38년(1543)부터 공해군7년(1615)까지 살았던 선승이다. 선수 스님은 청허당 서산스님과 함께 커다란 가풍을 형성했던 걸승이다. 이 문집은 스님의 사법제자인 백암각성(白巖覺性)에 의해 공해군 11년(1619)에 편찬 간행되었다.

선수 스님은 부용(扶用)대사에게서 법을 배웠고 당시 재상이었던 노수진에게 7년간이나 책을 빌려 읽었다고 한다. 이는 선수 스님이 선승으로서의 기개를 갖춘 후 세속의 학문에도 달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스님이 배어난 문장가로 주옥같은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을 일찌감치 뒤엎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휴당집은 5권으로 구성 되었는데 1권에서 4권까지는 시이고 5권은 주로 소(頌)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여행기인 금강산천루교기가 실렸다. 1권부터 4권까지의 시 부분은 오언절구(五言絶句) 오언을 시(2권) 칠언을 시(3권) 칠언소시(4권)의 순으로 배

조선 선수선사 시 담아

실상 드러낸 선기 물씬

浮休堂集 4



열되어 있다. 칠언소시가 앞의 3가지 시들보다 분량이 많다. 소시는 절구를 말하는 것이니 부휴당의 문집은 시를 위주로 이뤄져 7언절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님의 시는 선승의 선기가 물씬 풍긴다.

특별한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저 여여한 실상으로서 모두가 말 밖의 선기(禪機)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도외시하지 않은 점이 부휴당의 시들이 갖는 특징이다. 입탄을 겪는 시대적 아픔과 중생계를 굽어 보는 수행자로서의 안타까움을 여지없이 드러낸 점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백리 모래도 우는 길에 임금 생각에 애가 끊기다(百里鳴沙路 臨君獨斷腸)"라든가 "멸화의 소식 끊겼다 말하지 마소 비 개면 신새는 다시 서로 부트리(莫道拈花消息斷 而餘山鳥更相呼)"라는 대목, 또 "어느 날에 이 흥취한 도적 다 없애고 우리의 길을 산문에 펼치라(何日擲除光賊盡 更令吾道振山門)" 등 시편들이 스님의 시적 재능과 선사로서의 기풍, 한 시대 지성인으로서의 비애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님이 보여 주는 승속 초월의 단면은 속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정을 승화시키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 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작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불자 1권 봉안불사'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

"전화 한통하면 봉안불사 O·K"

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불자 1권 봉안불사
- ◆대장경 법보시안내
- ◆화주 권선 안내
- ◆부다피어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어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까지 돈 안들이고 봉안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마음선원 합창제에 동참해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대중스님들, 교계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사부대중의 뜨거운 자비의 마음은 우주법계의 구석구석으로 올려 퍼질 것입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때 병상에서 가쁜 숨을 토해내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위한 이 행사는 자비실천의 큰 불사로 남아 있을 것이며 불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마음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번 '심장병어린이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를 위해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각 종단 스님과 불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연장에 자리가 부족해 공연관람을 못하신 불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장병어린이에게 '생명의 빛'을 찾아주기 위하여 노래하는 도반들과 한마음이 되어 끝이 없는 대서원 세워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합장
신도회 일동

Hanmaum Summer Concert